

광주역·송정역·상무지구, 도시재생·혁신 ‘삼각축’

광주역, 도시재생뉴딜 등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변신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지정 호남권 최대 교통 허브로
 상무, 도심 융합특구 지정...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

광주역, 광주송정역, 상무지구 일원이 오랜 침체와 정체에서 벗어나 광주도시재생과 혁신의 새로운 거점, 3대 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과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도시 등을 통한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는 공사에 착수하는 등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민간복합개발을 통해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변신한다.

창업과 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 주거지원, 녹지·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마중물이 될 어울림팩토리가 착공됐다. 2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542㎡ 규모의 유희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창업자 입주공간으로 활용되며, 7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350억 원 규모의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공사도 7월 말 착공과 함께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광주역 후면 1만4000㎡(4235평)에는 5년간 총사업비 1688억원을 투입해 그린, 디지털, 스타트업 중심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하는 도

시재생 혁신지구가 국가시범지구로 들어선다. 이를 통해 광주역 일원은 창업·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인프라가 구축돼 호남권 최대 창업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송정역 일대는 국토부 지원 등을 통해 업고 투자선도지구로 개발된다. KTX 등 광역고속 교통망을 통해 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접근성을 무기 삼아 산업·업무·주거 등의 융복합지구로 조성된다.

제1구역(3만1778㎡)은 KTX 광주송정역 일대의 교통망과 환승체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국토서남권 광역교통의 허브로 육성되고, 후면 제2구역 52만8649㎡는 빛그린산단과 연결하는 자동차산업 연구·지원시설과 주거, 상업 융복합단지로 개발된다.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사업 지정·고시에 따라 기본·실시계획 수립·승인절차 등을 거쳐 2022년 토지 보상,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무지구는 삶·일·여가가 연계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특구로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85만㎡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복합 혁신공간을 만들어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공간정비 사업을 집적하고 일터, 삶터, 놀이와 배움의 터전이 결합된 혁신적인 복합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미래 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혁신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미래를 대비하

는 스마트 그린 환경 조성, 도전이 일상화되는 혁신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SW드림센터, ICT융합센터, 클러빌BIZ센터 등이 들어설 예

정이다. 시는 최근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3년 토지보상,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박선미기자



초복 맞은 시민들, 북적이는 삼계탕 판매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판매점 앞에 초복을 맞은 시민들이 포장 주문을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30세대 일주일간 확진자 3393명인데...접종은 빨라야 다음달

“백신 수급 문제없다면 정부...2030세대는 잘못 없어”

최근 일주일간 20~3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의 42.6%에 달하는 339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연령대의 백신 예방접종은 빨라야 8월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감염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7월5일부터 11일까지 일

주일간 20대는 1984명, 30대는 1409명 등 20~30대 연령층 3393명이 감염됐다. 이는 이 기간 전체 확진자 7962명 중 42.6%에 달하는 수치다. 직전 주와 비교해도 2082명에서 3393명으로 13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 1324명 중 20대는 323명, 30대는 243명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중

42.7%가 20~30대다.

오는 12일부터는 50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지만 20~30대 젊은층이 포함된 40대 이하는 구체적인 예방접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차장 겸 부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고연령층, 기저질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가장 우선해서 접종이 실시됐다”면서 “7월 말 8월 중

에 50대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히 이를 추진하고, 8월 중순 이후 50대 접종이 마무리되면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도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대로 20~40대는 8월 말 이후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점, 클럽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0~30세대에 ‘3밀’ 환경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일 페이스북 ‘대한민국 정부’ 계정에는 “20~30대분들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

으로 사적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2030세대의 방역 노력을 당부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으세요 ▲당분간 모임·회식 자제해주세요 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백신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들여오고 있다”며 “2030세대는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워킹레일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성을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